한국인도 IS 가담?

터키서 실종된 한국인 남성 행적에 의문

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지난 10일 사라진 김모(18)군의 행적에 의문이 많아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터키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김군은 실종 당일 킬리스 시내의 M호텔에서 가방과 소지품을 챙겨서 동행한 A(45)씨 몰래 호텔을 떠났다. 김군이 산책 등을 위해 잠시 호텔을 나선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또 김군과 A씨가 각각 다른 방을 쓴 게 아니라 같은 방을 사용했는데도 A씨는 김군이 호텔에서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고 사흘 동안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김군을 찾으러 다녔다고 터키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은 국내에서 이메일로 사귀었다는 '핫산'이라는 사람을 킬리스에서 만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IS는 최근 이메일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서방국 젊은이들을 포섭하려 시도하고 있다. 김군의 행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터키 현지언론은 김군이 IS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로 불법입국했다며 터키 당국이 한국 측으로부터 김군의 컴퓨터에서 IS 조직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실종자를 찾을 것"이라며 김군의 IS 가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송병형기자

기자통제·정보공개 퇴행

홍보라인부터 소통 노력 '제로'

<1면에서 계속>

청와대와 국민 사이 소통의 핵심은 언론이다. 청와대도 동하는 언로가 좁은 문이 된 지는 이미 오래. 예고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언론이 불편하기는 매한가지다. 하지만 메트로신문이 만난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정부가 특히 심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출입기자, 상주기자, 풀기자로 나뉜다. 등록절차만 거치면 되는 출입기자는 기자회견 때나 취재가 가능할 뿐이라 그다지 의미가 없다. 대변인실이 허가하는 상주기자는 돼야 어느 정도 취재가 가능하지만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최근 상주기자가 된 한 인터넷매체의 기자는 "이전에는 요건이 되면 다 받아줬는데 요즘에는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서류를 제출하면 '알아서 해 보겠다'고 말하고 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매체도 상주하는데 만 2년 정도 헛수고했다"고 털어놨다. 그나마 그가 속한 매체는 인터넷매체 중 규모로는 한손에 꼽히는 곳이다. 다른 인터넷매체의 경우 더 어려울 것은 불문가지다.

청와대가 폐쇄적이라고 느끼기는 비단 인터넷매체들만이 아니다. 한 경제지 상주기자 역시 "기자실 자리가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새로 상주기자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창간된 경제지의 기자는 "청와대를 뚫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신생매체에는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정치부에서 잔뼈가 굵은 한 일간지 기자는 "외교부나 국방부를 포함해 정치부 출입처 중에서 청와대가 가장 폐쇄적"이라며 "이번 정권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청와대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목표는 풀기자 가입이다. 가장 취재 환경이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도 현재는 주요 행사 자리에서나 대통령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비서실을 출입하는 등의 밀착취재는 옛이야기가 됐다.

언론에 폐쇄적인 청와대가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힘쓰는 것도 아니다. 당장 청와대의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받으려면 청와대 취재기자들에게 부여하는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일반 국민에게도 대부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미국 백악관 등과는 비교도 안 된다.

청와대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공표' 목록 조차 2013년 현황을 지난해 12월에 돼서야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마저도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3월 공개 청구한 결과였다. 청와대의 폐쇄성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청와대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불통 논란이 있어왔다.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유출 의문을 거치면서 논란은 커졌다. 청와대 홍보수석과 대변인의 교체가 있었지만 상황은 되레 악화되는 분위기다. 사람만 바뀌었지 담당자들 조차 누구하나 불통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가 없는 셈이다. /송병형기자

日, 美교과서 '위안부' 왜곡 시도

일본 극우단체와 정부가 미국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내용을 왜곡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 교과서 왜곡을 주도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소속의 다카하시 시로(高橋史朗) 메이세이 대학 교수는 최근 국가기본문제연구소(JINF)에 게재한 영문 기고문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을 탐색하기 위해 작년 말 미국을 방문해 실사(審査)를 벌였다고 밝혔다.

다카하시 교수는 방미 기간 미국 전역에 8개 위안부 기념비와 동상을 직접 조사했고 역사교과서 문제를 주제로 세명의 고등학생과 그 부모들을 인터뷰했다고 소개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특히 상세한 실사 결과를 일본 뉴욕 총영사에게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다카하시 교수는 실사결과를 소개하면서 미국 공립 고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맥그로힐 세계사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는 일왕의 선물"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며 난징 대학살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 삭제와 함께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캐나다 인권박물관에 진열된 위안부 전시물을 거론하며 "일본 교과서에 위안부 운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한 타와라 요시후미(俵義文)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 21 대표의 사진이 걸려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1973년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일본 작가 센다 가코(千田夏光)를 소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일본군에는 종군 위안부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제주공항 둘러보는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8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제주국제공항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 영화 '인터뷰' 미얀마서 직접 단속

미얀마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암살을 그린 미국 영화 '인터뷰' 복제판 단속을 북한 관리들과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김석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가 11일 우민쑤에 양곤 주지사와 면담한 후 미얀마 경찰이 대대적인 외국영화 불법 복제물 단속에 나선 사실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양곤의 DVD 판매상인들의 말을 인용, 최근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관 관리들이 시내에 있는 판매점들을 방문해 '인터뷰' 복제판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이 시 전역에 걸쳐 복제판 단속과 수거에 들어갔으며 때때로 북한 관리들이 동행하기도 했다고 상인들은 전했다.

경찰이 단속에 돌입한 후 베스트셀러였던 '인터뷰' 복제판은 양곤 시내 주요 판매점에서 자취를 감췄으며, 거리 상인들도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정원기자

국방부 '성군기 위반' 징계 강화

'군인 징계령' 개정안 4월 16일부터 시행

국방부는 18일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군기 위반을 일으킨 군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행위를 한 군인은 비행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파면 혹은 해임 징계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을 제외한 성폭력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비행의 정도는 약하나 고의가 있으면 해임 징계를 받았다.

성매매에 대해서도 징계 기준이 강화됐다.

성매매를 한 장교와 부사관은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혹은 해임, 비행의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있으면 해임 혹은 계급강등의 징계를 받는다.

지금까지 간부의 성매매 행위는 그 밖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분류돼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혹은 해임, 비행의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있으면 계급강등 혹은 정직 징계를 받았다.

간부에 대한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계급 강등, 정직 순이다.

성매매를 한 병사는 지금까지는 고의가 있으면 비행 정도에 따라 휴가제한, 영창, 계급 강등의 징계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고의가 있으면 영창 혹은 계급강등의 징계를 받는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윤정원기자

수면 위로 떠오른 '안희정 대망론'

박지원·이인영 "대선 후보로 밀겠다" 공개 지지

'안희정 대망론'이 연일 화제다. 지난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충남 합동연설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안희정 대망론'을 언급하며 "언젠가는 박지원이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통령 선거운동을 앞장서서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언한 일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박 의원은 18일 전남 합동연설회에서도 '안희정 대망론'을 재언급하면서 당대표와 대권주자 분리론을 폈다. 이인영 의원 역시 안 지사를 "충청의 새로운 별"이라고 치켜세우며 주요 대권주자로 언급했다. 대권주자로서 안 지사의 존재감은 어디서 오는걸까.

안 지사가 2010년 충남지사에 처음 당선됐을 때만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에 기댄 결과라는 시선이 많았다. 이 같은 시선은 지난해 안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확 바뀌었다. 안 지사는 현재 충청도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친노(친노무현)계의 새로운 세상, 또는 친노계 수장인 문재인 의원의 대체재로 언급되기도 한다.

안 지사는 '좌희정 우광재'로 불릴 만큼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다. 하지만 정권 초기인 2003년 12월 여러 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끝까지 '몸통은 보스는 한 이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출소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에게 짐을 끼치기 싫다며 노무현정부 기간 동안 공직을 사양했다. 이 같은 행적은 안 지사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꼽히고 있다.

안 지사는 충남지사로 일하면서 진보와 보수의 통합을 언급하는 일이 많아졌다. 야권에서는 전반적으로 중도 보수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념적 지형을 반영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수적인 민심의 충청권에서 신임을 거둔 만큼 앞으로의 가능성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방자치제의 역사가 20년이 되가면서 광역단체장들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점도 안 지사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야권의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여권의 홍준표 경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대권주자군을 형성하며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점도 안 지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쉽지 않네" 새정치민주연합 2·8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문재인(오른쪽부터)·이인영·박지원 후보가 18일 전라남도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전남도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영 "세월호 인양이 바람직"

"국가예산으로 인양, 이제 공론화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수개월 동안 팽목항에서 사고수습을 진두지휘했던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와 관련해 "인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실종자 가족들이 찬바람이 쌩쌩 부는 바닷가(팽목항)에 계시는데 거기 계시는 이유가 인양을 꼭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월호에는) 기름이 아직 상당 부분 남아있다"며 "진도 군민들도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선체 인양 비용과 관련해서는 "최소 1000억원 정도를 예기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선사인 청해진 해운선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보험 커버도 제대로 안 되고, 재산도 한계가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국가 예산을 들여 인양해야 하는데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북, "5·24 해제 등이 이산가족 상봉 조건

북한은 18일 우리 정부가 요구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5·24 조치 해제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개인 필명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바란다면 무엇이 선자이고 무엇이 후자인가를 똑똑히 알고 그를 위한 조건과 환경부터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떠드는 자들이 왜 그를 위해 가장 먼저 없애야 할 5·24 조치 같은 것을 계속 끼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동족과의 만남이니 협력, 교류 자체를 법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도 문제 삼았다.

또한 남측이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대북전단 살포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며 "총포성이 울부짖는 속에서 가족, 친척들이 뜨거운 혈육의 정을 나눌 수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와 관련이 마련되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문제는 물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많은 일이 저절로 풀리며 또 빠르게 진척되게 될 것"이라며 "문제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북측에 남북 당국회담을 제의하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송병형기자

국회, 도청탐지시설 설치 무효화

국회가 도청탐지장비 설치 계획을 무효화하는 대신 상시 점검을 통해 도청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국회 고위 관계자는 "도청탐지 장비를 설치할 경우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된다"며 "또 설치한다 해도 도청을 탐지하는 가능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국회는 도청탐지 장비를 설치하는 대신 외국 정상과 같은 주요 인사가 방문하는 경우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도청 여부를 점검하고, 또 정기적으로 도청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연말에는 새해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 사무실을 포함해 국회 전역에 정밀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서 도청탐지 장비가 설치된 곳은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는 정보위원회 회의실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2013년 국회 본청의 국회의장·부의장 집무실과 각당 대표·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 집무실 등 30여 곳에 도청 방지시스템을 설치키로 하고 예산도 6억1000만원을 배정한 바 있다.

/정윤아기자 yoona@

4.29 재보선 누가누가 뛰나

4·29 재·보선이 18일 현재 101일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 등에서의 보궐선거가 확정된 상황. 어미 상당수 예비주자가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을 통해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 관악을에는 새누리당에서 오신환 당협위원장·김철수 전 당협위원장(양지병원장), 김희우 당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등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희철 전 의원, 정태호 전 노무현 대통령 대변인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안철수 의원 측 인사인 박왕규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관악' 이사장도 거론된다.

경기 성남중원에는 새누리당에서 신상진 전 의원(현 당협위원장)이, 새정치연합에서는 은수미 의원(비례)과 정환석 현 지역위원장이, 이밖에 안 의원과 신당 창당 작업을 함께했던 정기남 한국정치리더십센터 소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광주 서구을에는 새누리당에서 조준성 전 광주시당 사무처장이, 새정치연합에서는 김하중 전남대 교수, 김성현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용섭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지역위원장인 조영택 전 의원, 정상용 전 의원, 김정현 당 수석부대변인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송병형기자

한국장학재단, 기부금으로 장학생 선발

한국장학재단은 교육 기부 문화의 혁신과 사회적 참여를 제고하고,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모집한 민간 기부금 25억원으로 2015년 사랑드림장학생 406명을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랑드림장학생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 저소득층 성적우수 대학생 등 사회계층 지원의 등록금과 생활비 용도로 사용된다. 올해는 8개 기관(대한LPG협회, 유한킴벌리(?)코리아, 한국화웨이, 구찌(GUCCI)그룹코리아, 세계만인회(?)장단, KGC인삼공사, 둔남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장학금이 지원된다.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19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3월 중 발표된다.

중국·한국 세계 게임 이끈다

IDC "2018년 32조원대 성장" 모바일·부분유료화 덕분

세계 게임 산업의 중심이 미국·일본에서 중국·한국·대만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APEJ) 지역의 온라인게임 시장 매출이 앞으로 3년간 연평균 18.53%씩 성장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지역의 온라인게임 매출 규모가 2013년 13조9600억원에서 2018년 32조7500억원으로 급증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의 게임시장 규모는 6.3% 성장해 2018년 31조34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APEJ 온라인 게임의 급성장 배경에서는 중국의 존재가 가장 먼저 작용했다. 중국이 이 지역에서 무려 76%의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을 보이는데다 앞으로도 매출 규모가 수직으로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다.

IDC는 "중국은 물론 한국과 대만에서도 꾸준히 온라인게임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며 "이들 3개국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95%를 넘은 상태"라고 말했다.

모바일게임에 대중화도 APEJ 지역 게임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인터넷 브로드밴드 기술 향상과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모바일게임이 급속도로 보편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MOBA(제한공간전투)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게임과 e스포츠가 기존의 온라인 PC게임 유저들을 매료시키면서 전체 산업 성장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고 IDC는 설명했다.

◆MOBA e스포츠도 주목

공짜 마케팅(freemium)도 게임 산업의 수익 급증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정기 구독료 대신 도입한 부분유료화(F2P) 모델이 게임 유저들에게 별 거부감 없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IDC는 "F2P 모델은 구독료 방식보다 예상 수익을 잡기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진입 장벽이 낮아 새로운 유저를 끌어들이기에 훨씬 적합하다"며 "특히 아시아에는 앱-인-결제 방식이 게임 산업의 주요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원기자 kimse@metroseoul.co.kr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 필리핀을 방문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18일(현지시간) 마닐라의 산토 토마스 대학을 방문해 청소년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고 있다. 아시아 2개국 순방에 나선 교황은 지난 13~15일 스리랑카 방문에 이어 15일 도착한 필리핀에서 19일까지 머문다. /AP연합뉴스

호흡기 질환은 필수?

metro hongkong

소각장 옆 주민들 고통

쓰레기 소각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메트로 홍콩에 따르면 우한시 한양구에 있는 귀담산에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쓰레기 소각장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생활쓰레기 소각장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다.

소각장 주변은 비교적 인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반경 800m 안에 주민 3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소각장이 들어온 2012년부터 호흡기 환자가 늘어났고, 악취를 참지 못해 이사를 하는 주민마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먼지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중 창문, 이중 커튼을 사용한다. 아예 테이프로 창문을 막아버린 사람도 있다.

황왕성(65)씨는 소각장을 등진 베란다 창문을 제외한 모든 창문을 비닐과 테이프로 밀봉해 버렸다. 이렇게 했는데도 새벽이면 코를 찌르는 냄새에 잠을 깬다. 이불로 머리를 감싸도 마찬가지다. 왕씨와 그의 아내 모두 인후염과 폐 질환을 앓게 됐다.

황모(6)군은 기관지 주위 근섬유모세포종이란 희귀병을 앓고 있다. 기침을 하다 피를 토하는 일이 다반사다. 아이의 부모도 비염과 인후염을 앓는 호흡기 질환 환자다.

한 주민은 "2012년부터 두 쓰레기소각장이 환경평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불법 시운전까지 하고 있다. 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활 및 의료 폐기물을 매일 1만1000톤 이상 소각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학원도시발전환경연구소의 쉬융 교수는 "쓰레기 소각 관리는 환경보호법의 규제를 받으며 현지 정부의 행정명령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인구가 이렇게 밀집된 지역에서 계속 소각을 한다면 소각 후 발생하는 유독물질이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리=정은희기자

프리미어 축구팀도 휘청

스위스 최저환율 포기 충격 일파만파

스위스의 최저환율제 전격 폐기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의 웨스트햄을 후원해온 온라인 증권회사 알파리 UK가 파산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3년 웨스트햄에 3년간 900만 파운드(약 147억3000만원)를 지원하기로 계약했지만 스위스 조치로 인한 충격을 견디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최대 환거래 중개회사인 FXCM가 긴급 자금 수혈을 모색하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고객들이 스위스 조치 때문에 2억2500만 달러(약 2424억4000만원)의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환거래 중개회사인 글로벌 브로커스 뉴질랜드도 이번 조치로 자본 하한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거래가 중단됐다.

이밖에 씨티그룹과 도이체방크도 각각 최소한 1억5000만 달러의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위스 중앙은행(SNB)은 지난 15일 통화가치 상승을 막고자 도입했던 최저환율제를 3년여 만에 전격 폐기했다. /하국배기자

화성서도 인터넷 쓴다

'화성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만들겠다.'

미국 시애틀 타임스는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인 일론 머스크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주 시애틀의 시애틀 센터 피셔 파빌리온에서 열린 비공개 행사에서 이런 공갈은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약 1200km 상공에 위성 수백 개를 띄워 지구 주위를 돌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구 전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을 확장하면 화성에 있는 사람들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하국배기자

응답한다~ '창조경제'

금융권, 핀테크·기술금융 활성화로 화답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선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역동적 혁신경제'로 전환해야 하며 그 핵심은 '창조경제'의 구현이다."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로부터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보고'를 듣고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창업기업들이 시장진출 과정에서 겪는 자금조달이나 판로확보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겠다"며 "ICT와의 융합을 통해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하고 제조업을 혁신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한해 '혁신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으로 핀테크(Fin Tech·금융기술) 등 창조금융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기술금융'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금융권이 화답했다.

◆ 금융권,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창조경제' 지원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은행 등은 '핀테크'와 '기술금융'을 중심으로 한 창조금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사 CEO들이 신년사나 간담회 등을 통해 '창조경제'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핀테크와 기술금융 전담 부서를 개편하는 한편 각종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와 미래성장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모두 18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하면서 금융권 또한 이 같은 흐름에 자연스럽게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KB금융그룹은 올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KB인베스트먼트 내에 투자전담팀(5명)을 구성하고, 핀테크 관련 핵심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150억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결제송금서비스와 ▲모바일 금융보안 ▲모바일 거래의 인증시스템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 기반 금융기술 등 4대 주력 투자 분야를 선정해 해당 기업에 대해선 지분과 지식재산권 투자를 단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새롭게 신설한 기술금융 전담팀에서 핀테크업체에 대한 대출 지원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 신산시스템 테스트 플랫폼 제공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한금융그룹 역시 핀테크와 기술금융,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창조적 금융의 범위를 확대해 시대 흐름에 맞는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장려해 고객과 기업의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상생의 결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은 기술금융과 빅데이터 등을 통해 금융상품과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선도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고, 고객자산 등 고유자산과 관련해 수익률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 회장은 "핀테크 환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내면채널을 최적화하고 금융복합점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객 관점에서 대면채널을 최적화하고, PWM 등 금융복합점포 운영모델을 업그레이드할 뿐 아니라 스마트 등 비대면 채널을 개선해 고객관리와 마케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특화부서꾸리고 기술금융 지원 확대하고

핀테크를 활용한 상품도 있다. NH농협은행은 직불형태의 금융서비스인 'NH워치뱅킹'을 1월 중 선보일 계획이다.

국내에서 스마트워치 기반의 금융 서비스가 나오는 것은 처음으로 고객은 워치 뱅킹을 통해 계좌잔액과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전담 사업부도 꾸려졌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연말 은행권 최초로 핀테크사업부를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기존 스마트금융부와 별도로 마련된 이 부서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적극적인 제휴를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상품판매채널을 이끌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역시 스마트금융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핀테크 전략을 수립 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인터넷 전문은행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 'IBK ONE 뱅크'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핀테크 기업 등과 손잡고 신모바일 지급결제 시장 확대도 선도할 방침이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금융 공급 확대 또한 금융권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 중 하나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난 2013년 7월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금융 전담조직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한해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한 대출로 총 4064건 2조2168억원을 기록하며 은행권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

KDB산업은행은 앞으로 3년간 30조원 규모를 제공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은 인프라 구축 등 개별기업 부담이 힘든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돕게 된다. 또 통합 산은이 주관하는 기술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투융자 복합지원도 지난해 6조 5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더 늘리기로 했다.

/박익균기자 ● ee0219@metroseoul.co.kr

분양시장 홍수

과잉공급 우려 시각도

올해 분양시장에 나올 주택물량이 지난해에 이어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역대 가장 큰 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114는 국내 300여개 민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올 한 해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160여개 업체에서 30만833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공공물량을 제외한 26만9866가구와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약 14.3% 증가한 수치다. 분양 일정이 잡혀지지 않은 시행사 물량과 공공물량이 더해지면 올해 분양계획은 40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18만9043가구가 계획 중에 있어 전국 분양물량의 61.3%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수도권에 공급된 물량 9만6389가구(아파트 신세브 제공)의 2배가 달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특히 미분양 사태를 우려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청약자들은 금리 상승 움직임에 주시하며 '묻지마 청약'을 경계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4월 이후 가격 오름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분양과 기존 주택 분양의 가격차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학원기자 kimc0604@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9-15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업본부장 김용학
편집국장 김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1990년 01월 21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다06414 가판관계

송도 재미동포타운 정상화 '산너머 산'

금융 약정 난제…해외 교포 신뢰회복이 선결과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말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사업시행사와 업무약정을 체결하는 등 정상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산적한 문제점들로 언제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투자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송도아메리칸타운(SAT)과 재미동포타운의 새로운 시행사로서 올해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재미동포타운은 송도국제도시 5만3724㎡ 부지 위에 2018년까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호텔, 기타 부대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재미동포 사업가 김동옥 회장이 대표로 있던 코암인터내셔널이 사업을 하다 지난해 6월 정해진 잔금납부일을 지키지 못해 사업이 중단돼 왔다.

이후 인천경제청 주도 하에 SAT를 설립, 우선협상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우선협상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마무리한 뒤 2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였다.

그러나 2월 착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속사정을 아는 업계 사람들의 시각이다. SAT 측 역시 진척된 사항이 없어 구체적인 일정을 논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SAT 관계자는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업무를 시작한 지 이제 2주 조금 지난 상황"이라며 "현재 계획 수립과 방향 설정 등을 하고 있는 단계로 자세한 일정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협상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도 "인천경제청과 SAT 측에서 금융약정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시공계약을 하는 등의 진전이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문제는 사업 진전의 키를 쥐고 있는 금융약정이 이 프로젝트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데 있다. 재미동포들의 국내 대출이 쉽지 않아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외동포들의 경우 연락하는 데 제한이 있어 은행마다 대출자격을 까다롭게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 시행사인 코암인터내셔널이 시공사 선정에 애를 먹고, 1% 남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이유도 금융약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인천경제청과 코암이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고국을 그리워하는 재미동포들에게 정주환경을 조성해주자는 콘셉트는 좋았지만 처음부터 무리가 많았던 사업"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무래도 사업 주체가 민에서 관으로 넘어갔으니 프로젝트는 보다 수월하게 진행되겠지만 이미 재미동포들의 신뢰를 크게 잃은 상태라 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 코암은 지난 2013년부터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시전 분양을 하면서 시공사로 D H 등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를 언급했다. 그러나 시공하겠다는 건설사가 없자 결국 지방건설사인 S사와 계약을 맺었고, 이마저도 잔금을 내지 못해 인천경제청으로 사업권을 넘기게 됐다.

결국 우선협상시공사로는 대형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처음 약속했던 시공사, 착공일, 준공일 등은 지키지 못했다. 급기야 지난해 말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게 되면서 계약자들의 해지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에서 부동산사업을 했던 한 관계자는 "재미동포들의 특성상 결속력이 강하고 입소문이 빠르다"며 "이전에도 제주도 중문단지 '아미지카운티 토지 분양'과 중국 심양 '캘리튼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 사기를 당한 경험들이 있어 신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암 김동옥 회장이 성공한 재미동포로서 신망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를 믿고 계약한 동포들이 많았으나 사업 자체가 계속 지연되자 마음을 접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다"며 "프로젝트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인천경제청과 SAT가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옥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바람

기업銀, 최대 1.0%p 내려 은행권 전반 확대 주목

IBK기업은행이 최근 중도상환 수수료 요율 인하를 단행하면서 주요 은행들도 잇따라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기업은행은 대출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5일부터 가계와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종류에 따라 최대 1.0%포인트 인하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를 말한다.

이번 인하 조치는 지난해 11월 은행연합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의 정당성 및 적정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후 은행권 중 가장 먼저 시행됐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그 이외의 대출,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로 구분해 중도상환수수료 요율을 현재 1.5%에서 0.3%~1.0%포인트 인하했다.

대출금 중도상환 발생시 은행의 실질 손해비용이 현재 요율보다 높은 기업대출도 중소기업과 상생한다는 취지에서 고정금리대출은 0.1%포인트를, 변동금리대출은 0.2%포인트를 각각 인하했다.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해서도 별도의 변경약정 절차 없이 인하된 요율을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또 중도상환수수료의 성격을 고객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명칭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의 수익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저비용 조달기반 확충과 비이자수익 기반 확대 및 건전성 관리 등을 통해 수익 감소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측은 올 상반기 내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협은행도 다음달 중 수수료 인하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며 신한은행 역시 검토 중에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인하에 나서면서 다른 은행들도 더 이상 미적거리기는 힘들 것"이라며 "다만 전산시스템 변경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당장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6조2000억원이나 늘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06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해 10월 6조원으로 지난 2008년 1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민지기자 minji@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오른쪽 가운데)이 그룹 임원들과 함께 비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제공

김정태 하나금융회장 혁신 통해 '행복한 금융' 실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올해 통합을 넘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18일 하나금융은 지난 17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카드 등 그룹 관계사와 해외현지법인 직원 등 1만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대한 상상(上上) 출발 2015'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2014년이 소통과 협력의 해였다면 2015년은 혁신의 해"라며 "통합도 우리가 만들고 있는 혁신 중의 하나인 만큼 2015년에는 통합을 넘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 큰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룹의 새로운 경영 슬로건으로 '행복한 금융'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금융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자는 하나금융그룹의 미션이 곧 '행복한 금융'"이라며 "직원이 행복하고 고객이 행복하며 사회가 행복한 금융, 모두를 위한 행복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복한 금융'을 위한 세 가지 행복원칙으로는 ▲무엇보다 숫자가 아닌 고객행복을 최우선으로 다른 은행과 경쟁하는 '행복경쟁' ▲고객, 직원, 주주, 사회가 모두 함께 성장하는 '행복성장' ▲행복의 일마를 함께 나누며 사회의 균형을 맞추는 '행복나눔'이 제시됐다.

한편 매년 출발행사에서 깜짝 이벤트를 통해 직원들과 소통했던 김 회장은 올해 '3D 가상 증강현실'을 통해 경영 메시지를 발표하며 '변화와 혁신'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하나금융 소속 임직원들이 참여한 '상상 CREW' 단원의 퍼포먼스와 단체 줄넘기를 '하밴드'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전 임직원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행복한 금융'을 실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아란기자 alice1993@

한국장학재단 사랑드림장학생(기부금)

2015년도 선발계획 공고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기부 문화의 확산과 사회적 참여를 제고하고,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부금을 재원으로 사랑드림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사랑드림장학사업을 후원해 주신 8개 기부처의 뜻에 따라
우리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사랑드림장학생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선발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년 01월 19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한국장학재단은 앞으로도 **기부금 재원의 장학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의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4.01.19(월) ~ 01.27(화) 18:00까지
- **서류 제출기간** 2014.01.19(월) ~ 01.3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장학금 신청
  - ※ 8개 기부처별 신청자격을 고려하여 1개만 신청
  - ※ 장학생 선발기준 및 일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www.kosaf.go.kr
- **문의전화** 1599-2290
- **주 소** (100-753)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남대문로 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6층 한국장학재단 교육기부사업부 사랑드림장학금 담당자

구 분	신청자격	지원규모		
		선발 인원	장학금액	지원기간
대한LPG협회	4년제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자 공고일 현재 1개 학기 이상 이수 및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대학생 ※사랑드림장학금(대한LPG협회) 기수혜자 학생은 선발 제외 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 기사 가정 (택시운전경력 1년 이상)의 자녀	250명 선발 (법인, 개인 각 50%)	학기당 200만원 (생활비 우선보조로 정액지원)	1년 ('15년 1 ~ 2학기)
(주)넥스코리아	15년 각 1학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국내외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서울도시고 자립 곡성시 또는 실종자의 배제 자녀 자녀 손주인 자 해양수산부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사랑드림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25명 내외 선발 (단국 지역대상)	학기당 등록금전액 (해외 대학은 학기당 350만원 이내) ※등록금 인상 등으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졸업 시까지 휴학등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KGC인삼공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공고일 현재 1개 학기 이상 이수 및 잔여 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대학생 6년근 인삼경작인 자녀	20명 내외 선발	학기당 300만원 (등록금 범위내 지원)	1년 ('15년 1 ~ 2학기)
한국하웨이	4년제대학 재학 중이면서 공고일 현재 3학년 이상 대학생 IT 컴퓨터 통신, 전자 기계 등 공학계열 전공자	10명 선발	학기당 250만원 (생활비 우선보조로 정액지원)	졸업 시까지 최대 4개 학기
구찌그룹코리아 (GUCCI)	4년제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공고일 현재 3학년 이상인 대학생 패션 관련 학과 전공자	7명 내외 선발	학기당 500만원 (등록금 범위 내 지원)	1년 ('15년 ~ 2학기)
세계한인회장대회	4년제대학 재학 중인 자 공고일 현재 1개 학기 이상 이수 및 잔여 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대학생	8명 내외 선발	학기당 250만원 (등록금 범위내 지원)	1년 ('15년 1 ~ 2학기)
운남(雲南)장학금	동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공고일 현재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대학생	15명 내외 선발	학기당 200만원 (등록금 범위내 지원)	1개 학기 ('15년 1학기)
KOSAF 협지원 기부펀드	4년제대학 또는 전문대학 재학 중인 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결 및 연장보호 대학생 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서 추천한 학생	19명 선발	200만원 (생활비 우선보조로 정액지원)	1개 학기 ('15년 1학기)

대한민국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사랑드림장학금 파트너

대한LPG협회 우리은행 하나금융그룹 KGC인삼공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EXON IBK기업은행 농협 KEB외환은행 KT&G citibank HUAWEI GUCCI SANOFI NOMURA

인재를 키우는 아름다운 기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하세요!
기부상담 (법인)02-2259-2622 (개인)02-2259-2028 (ARS기부)060-700-1003(1통 2,000원)

신한은행 소병윤무팀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한국예탁결제원 신재봉전무(왼쪽에서 다섯 번째)를 비롯한 양기관 직원들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 예탁원, 외화자금결제 서비스

신한은행은 1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외화자금집중결제서비스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외국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외화증권 매매대금을 집중 처리하는 외화자금 집중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자금이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개선하는 등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1월 이체 서비스를 담당할 은행으로 선정된 신한은행은 차별화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공해 새로운 서비스의 조기 안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신한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운영중인 한국금융사박물관과 증권박물관의 연계관람프로그램 마련, 금융경제교육 공동운영 등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백아란기자 alive@

거래소 "올해 유망기업 170곳 상장"

한국거래소는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유망기업 170곳을 주식시장에 신규상장하는 목표를 세웠다.

18일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의 2015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지난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7개사, 코스닥시장 68개사, 코넥스시장 34개사 등 총 109개사를 신규상장시켰다.

이는 전년 대비 24개사 늘어난 규모로서 공모금액도 3.6배 증가했다.

거래소는 최근 IPO 시장의 열기를 이어 지난해 성과보다 목표치를 상향설정하고, 유가증권시장에 20개사, 코스닥시장 100개사, 코넥스시장 50개사를 신규 상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경쟁력 있는 숨은 기업 발굴에 나서며 기술상장기업 상장특례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상장 유치를 위한 마케팅은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코넥스에서 코스닥 간 상장다리를 강화한다.

최 이사장은 "올해 국내 증시에서 우량기업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며 "또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우리 자본시장이 클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 외에도 올해 거래소의 주요 사업으로 ▲신상품 공급 확대 ▲자본시장 활력 회복 ▲거래소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거래소는 올해 파생상품 10개, 상장지수펀드(ETF) 30개, 상장지수증권(ETN) 50개 등 총 90개의 새로운 금융상품을 선보이기로 했다.

현재 코스피 200 선물의 1계약 금액(약 1억3000억원)을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 '미니 코스피 200 선물'을 도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외투자 수요를 노린 해외 파생상품의 국내 상장을 활성화하고 석유 금시장 및 단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육성 계획도 세운다.

최 이사장은 "선진국 수준의 금융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증시거래대금 하루평균은 7조원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한 증시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업 배당 활성화뿐만 아니라 초고가주 액면분할을 유도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올해 매출액 목표치는 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거래소의 매출액은 2821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 진출을 강화하고 글로벌 연계거래상품 확대와 글로벌 접근성·운영효율성 등을 제고한다.

최 이사장은 "특히 올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 걸림돌이 없도록 제도와 관행을 확 바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내외 마케팅을 활발히 전개해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가는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안전자산 선호 여전"

해외채권 투자 "환율이 관건"

글로벌 투자심리가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쏠리면서 유망 해외채권에 대한 관심이 한층 커졌다.

채권 전문가들은 해외채권 투자에 해당 국가의 환율 변동 흐름이 고금리 이점을 상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달러화 강세 국면에서 가장 투자매력이 큰 것은 역시 미국 채권이며 신흥국 중에서는 환율이 안정적인 국가 중심으로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에도 투자자들의 채권 선호 현상은 이어졌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주식자금의 순유입액은 1221억5200만 달러로 전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반면, 글로벌 채권자금은 2047억4100만 달러로 1년 새 84배나 불어났다.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비동조화) 현상을 보이며 수년째 침체에 빠진 국내 시장도 비슷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시장결제대금은 273조원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지만 채권결제대금은 5026조원으로 1.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올해에도 주식 대비 채권의 매력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유가 급락과 글로벌 경기 둔화, 스위스 고정환율제 포기 등 경기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긴축 이슈로 인한 긴장감이 팽배하다.

채권 전문가들은 해외채권 투자를 할 때 무엇보다 환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현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위아래로 너무 많이 흔들리는 나라는 피해야 한다"며 호주, 뉴질랜드, 중국 순으로 채권이 유망할 것으로 봤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올해 유로약세, 달러강세가 예상되므로 강달러를 이겨내는 신흥국을 선별해야 한다"며 "또는 달러채로 발행되는 신흥국 채권이 관심을 둘 만하다"고 분석했다.

문 연구원은 "경상수지와 외환보유고, 정부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필리핀과 우리나라 국채 등이 양호한 투자 대상으로 보인다"며 "다만 달러채 표시 신흥국 채권의 경우 발행국의 국가 신용 전망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통화가 달러보다 강세를 보이면 해당 국가의 채권 투자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KDB대우증권은 미 기준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해외채권의 매력도가 뒤바뀔 것으로 봤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엔 호주와 뉴질랜드 채권이 고금리 매력을 나타낼 것"이라며 "금리가 올라간 이후 하반기엔 중국과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의 신흥국 채권이 유망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미 금리 인상 시점은 시장 컨센서스인 오는 6월보다 다소 늦은 9월쯤으로 예상됐다.

루블화 폭락을 겪은 러시아 채권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렸다. 문 연구원은 "유가가 큰 폭 반등한다면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바닥이 확인되지 않아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기자 h.kim@metroseoul.co.kr

각양각색 양념, 보관법 제대로 알기

찐순이 주부 경제학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각종 양념을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양념도 분명 유통기한이 존재한다. 양념 재료를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소금은 염분 농도가 높아 미생물이 번식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소금 중 혼합물이 첨가된 가공소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존재한다. 반드시 포장에 있는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설탕도 당분 농도가 높아 소금과 마찬가지로 미생물이 번식을 할 수 없는 식품이다. 관리만 잘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개봉한 상태에서 습한 곳에 보관하면 굳어지는 현상이 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용기에 담아 밀봉하고 꼭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고춧가루도 소금, 설탕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양념 중 하나다. 지퍼백 지퍼 밀봉이 가능한 용기에 담은 후 공기를 빼낸 뒤 냉동실에 보관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고춧가루는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해서 보관하는 게 좋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참기름의 유통기한은 대부분 2년 남짓이다. 참기름은 지방산화가 이뤄지므로 공기 접촉과 직사광선을 피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 참기름은 냉장 보관 중 응고되는 현상이 생긴다. 이럴 때는 사용 전 상온에 잠시 꺼내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케첩과 마요네즈도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 케첩과 마요네즈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포장을 잘 확인해야 한다. 소비 기한이 남아 있는데도 케첩이나 마요네즈가 물처럼 나온다면 바로 제품을 바꿔야 한다. 부패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소비 기한 중에도 개봉 후 잘못 보관하면 부패가 시작될 수 있다.

식초 역시 소금, 설탕과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이 따로 없다. 하지만 제조사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에는 표기된 소비 기한을 지키는 게 좋다. 식초도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속 소재의 병에 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시중에 판매하는 '고추장·된장'의 유통기한은 대부분 2년이다. 이런 장류도 참기름과 마찬가지로 공기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는 게 좋다. 고추장·된장 등은 산소와 만나면 표면의 수분이 증발해 갈라짐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꼭 밀봉 보관해야 한다. /김민지기자 minj@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어쩌나

방통위, 관련 실태 사실조사 압박
SKT '서비스 중단' KT LG유플러스 '검토중'

중고폰 선보상제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압박에 이동통신 3사가 손을 들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16일부터 중고폰 선보상제 프로그램인 프리클럽 서비스를 중단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운영중인 스펀지 제로클럽과 제로클럽 프로그램의 중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전화 구매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 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을 구매해 신규가입하는 데 있어 'LTE 전국민무한 69 요금제' 가입시 15만1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돼 소비자는 63만8800원의 할부원가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프리클럽을 이용하게 되면 18개월 뒤 아이폰6 단말기 반납을 조건으로 34만원의 추가 할인을 받아 단말기를 29만8800원에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통사가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및 특정단말기 가입자로 한정해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다는 것. 실제 SK텔레콤과 KT의 중고폰 선보상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8개월 동안 누적 80만원을 사용해야 하고 LG유플러스는 62 요금제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18개월 뒤 단말기를 반납해야 하는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도 예상된다. 이통 3사에서 모든 단말기를 반납받는 것이 아닌 사별 기준을 마련해 단말기를 반납받을 수 있는 제품과 반납할 수 없는 제품으로 구분한 것. 특히 일부 액정 기능 등 고장 시 단말기를 반납하지 못하고 선보상 받은 요금을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향후 소비자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압박을 가해 온 것이다.

방통위의 압박에 SK텔레콤 측은 곧바로 해당 프로그램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시장 주도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느긋한 입장이다.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중고폰 선보상제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주관부처인 방통위 방침에 동조했다는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게 됐다.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 지난 14일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간 방통위도 SK텔레콤에 대해 조사 이후 제재 수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다만 SK텔레콤의 경우 중고폰 선보상제를 중단함으로써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하겠다는 의미를 밝힌 만큼 과징금을 감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신입사원과 산행하며 소통경영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가운데)이 17일 오전 그룹 연수 교육을 받고 있는 신입사원들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태화산 정상에 올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 회장은 연초부터 주말마다 계열사 임직원과 등반 산행을 이어가며 소통경영을 펼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제공

특허가 경쟁력이다

기자 수첩
정혜인 <산업부 기자>

최근 애플이 잇따라 특허를 출원하며 증시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 허공에 사용자가 손짓으로 제어하는 동작을 취하면 카메라가 이를 인식하는 동작인식 기술, 게임 조이스틱처럼 사용할 수 있는 스프링이 달린 슬버튼, 웨어러블 카메라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술 등 그 내용도 다채롭다.

지난 13일 미국 특허조사업체인 IFI 클레임 페이턴트 서비스의 발표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미국 특허 등록 건수 순위에서 11위에 그쳤다. 삼성전자는 4952건으로 2006년부터 꾸준히 2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애플보다 높은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13년 대비 2014년 등록 건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사정이 다르다. 삼성전자의 등록 건수 증가율은 5.9%에 그쳤는데 이는 전체 증가율인 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반면 애플은 삼성보다 적은 2003건의 특허를 취득했으나 전년 대비 1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구글의 활약은 더 눈부시다. 구글은 2014년 한 해 동안 2566건의 특허를 취득해 전년 대비 39%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허는 경쟁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무기이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혁신적인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 상대의 움직임에 뒤처지지 않는 특허 경영이 필요하다. 해프닝으로 일단락 났지만 삼성전자의 블랙베리 인수 추진설이 반가운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더 많은 숫자의 특허보다 양질의 특허 포트폴리오로 무장한 한국 기업을 기대해 본다.

삼성·LG전자 TV시장 주도권 본격화

퀀텀닷 vs 올레드 색감·해상도 등 전방위 경쟁

올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퀀텀닷(양자점)과 올레드(OLED) TV가 시장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와 TV 업계에 따르면 퀀텀닷 TV의 올해 판매량이 130만대 정도에 그치겠지만 2018년에 2000만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올레드 TV는 올해 400만대 정도의 수요를 목표치로 잡았다.

퀀텀닷과 올레드 TV는 연간 2억2000만대 규모인 전체 TV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지만 하이엔드급 전부 제품으로 갈린다. 디스플레이서치는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전시회 CES 2015에서 주목한 점으로 퀀텀닷과 올레드 TV의 경쟁을 꼽았다.

퀀텀닷과 올레드 TV는 색 재현력, 해상도, 디자인 등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색감에서는 자체 발광하는 소자로 만드는 올레드가 리얼 블랙의 구현 등에서 압도적으로 앞선 것으로 평가됐지만 LCD(액정표시장치) 기반인 퀀텀닷이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에 도달한 것으로 주목받으면서 혼전 양상이 됐다는 분석이다.

디스플레이서치는 "후면 광원부(백라이트 유닛)가 있는 LCD TV는 퀀텀닷을 포함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빛의 누출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며 "낮은 회색 모드에서 나타나듯이 검색 소자를 증착시키는 올레드의 색감이 더 낫다"고 평가했다.

/정은미기자 ryu@

삼성전자 'NX500' 출시 초읽기

삼성전자가 '타이젠 OS 시대'를 본격화 한다.

삼성전자의 타이젠 기반 스마트 카메라로 알려진 'NX500'이 국내 전파인증을 통과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타이젠 OS를 탑재한 스마트폰 출시에 이어 스마트TV를 2월 초 출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스마트 카메라 출시를 앞두고 있어 타이젠 OS 제품 라인업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관에 전파인증을 신청한 'NX500'이 신규 인증을 받았다. 'NX500'은 지난해 출시한 'NX300M'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모델로 타이젠 기반의 스마트 카메라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NX500'의 구체적인 사양은 알려지지 않았다.

모바일 기기가 전파인증을 받고 필드테스트를 거쳐 출시되기까지는 보통 2~3주 가량이 걸린다는 점에서 'NX500'은 내달 초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훈기자

후지필름, 신제품 카메라 공개

후지필름 일렉트로닉 이미징 코리아가 2015년 첫 신제품 카메라 3종을 공개했다.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은 셀카와 아웃도어 기능 등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175도 틸트 LCD와 눈 검출 AF(오토포커스)를 탑재해 셀프카메라 촬영에 최적화된 미러리스 카메라 X-A2, 작고 가벼운 바디의 하이엔드 콤팩트 카메라 XQ2, 아웃도어 카메라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XP시리즈의 최신작 파인픽스 XP80 등 3종이다.

임훈 후지필름 일렉트로닉 이미징 코리아 부사장은 "신제품들은 후지필름 80년의 기술력이 녹아든 독보적인 색감은 물론 향상된 성능과 휴대성도 겸비해 사용자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어 "스마트폰이 따라올 수 없는 화질과 차별화된 기능성을 갖춘 카메라 신제품을 꾸준히 선보이며 시장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선영기자

LG전자 영상 상담 서비스 진행

LG전자가 고객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상담 방식을 선보인다.

LG전자는 고객 감동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영상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폰에 전용앱을 설치하고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 상담사와 영상으로 상담할 수 있다.

고객은 간단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처럼 서비스기사를 부르거나 서비스센터를 찾아갈 필요없이 영상상담 서비스로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영상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면 고객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는 사물의 영상이 상담사의 PC로 실시간 전송된다.

특히 상담사가 설명하면서 마우스로 PC화면에 그림을 그리면, 고객의 스마트폰 화면에도 동시에 그림이 보여져 쉽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LG전자는 서비스 방문설명 처리건의 20% 가량이 제품기능 설명, TV 화질 조정, 케이블선 연결 등 영상을 보면서 해결 가능한 건이라는 조사결과에 착안해 서비스를 개발했다.

1년 간 의견 수렴, 사용성 테스트 등 소비자 조사 과정을 거쳤다.

영상상담 서비스는 평일 9~18시에 이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G전자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lgservic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양균 한국서비스FD담당 상무는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도 스마트하게 변모하고 있다"며 "보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로 고객 감동 서비스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철인 3종 경기는 자신감의 원천"

김동욱 델(Dell) 코리아 솔루션사업본부 상무

델(Dell)은 2009년부터 최근 몇 년간 스토리지 사업 강화를 위해 이퀄로직 등의 회사를 차례로 인수하면서 기업 솔루션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Dell 코리아의 솔루션사업본부를 이끌고 있는 김동욱 상무는 "Dell은 스토리지 사업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왔기 때문에 모든 투자와 역량을 집중해 시장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의 원천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40대 철인 3종 경기를 하기까지

김동욱 상무가 업무의 추진력을 얻는 원천은 바로 취미생활이다. 김 상무는 올해 50대에 접어들었지만 '철인 3종 경기'라는, 그 연령대에 쉽게 도전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취미생활을 갖고 있다.

그가 처음 운동을 시작한 것은 2007년 초의 일이었다. "당시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갖고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어 오히려 성취감을 느꼈어요. 이 느낌이 계속 이어질까 두려워 새해 목표를 고민하던 중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 새벽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맥주병이었던 그는 그럴듯한 수영 자세가 완성되자 수영에 재미가 붙었다. 그해 9월에는 기록은 꼴찌였지만 대회에 등록했고 이를 완영한 순간 '뭔가 하나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그를 달아오르게 했다.

여세를 몰아 10월에는 마라톤까지 시작했고 2008년 3월 완주에 성공했다. 오래달리기에 젬병이었던 그에게 달리기는 일종의 트라우마여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

이어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탈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철인 3종 경기로 넘어갔다. 지금은 일년에 몇 번의 대회가 있는지와 함께 업무 스케줄, 소요 경비를 따져 꾸준히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성공의 경험과 성취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내에서 마라톤과 자전거 동호회를 운영 중이며 회사 동료 3인은 김 상무의 도움으로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했다. 김 상무는 이런 자리를 고객사와 협력사까지 넓혀 한 달에 한번 운동을 하며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그는 "운동을 하며 느낀 것은 '불가능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과 성공의 경험과 영감을 공유하며 극복해나가면 됩니다. Dell의 스토리지 사업도 그렇게 키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상무는 Dell 코리아의 스토리지 사업이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비용 효율적인 제품으로 경쟁사와 차별화를 꾀하면서 앞으로 큰 성장이 예상된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혜인기자 hjung1404@metroseoul.co.kr

이상철 부회장 "IoT시대 세계 일등 기업 만들자"

미센트릭(Me-Centric) 중심의 5대 서비스 제시

"뉴 라이프 크리에이터(New Life Creator) 도약을 통해 고객관점 사고와 창조적 생각으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서 시장을 선도케 새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세계 일등 기업이 돼야 한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16~17일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2015 리더 혁신 캠프'에서 '뉴 라이프 크리에이터를 통한 사물인터넷(IoT) 시대 세계 일등 기업론'을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캠프에 참여한 510명의 리더 대상 특강에서 세계 일등 기업이 되기 위한 가치 창출의 중심이 더 이상 공급자가 아닌 고객으로 바뀌게 되는 미센트릭 중심의 5대 서비스를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사물과 사물이 서로 정보를 전달하고 이야기하는 IoT와 모든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프라 기반의 비디오, 브레인, 이모션의 콘텐츠를 통해 융·복합, 개인화,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전향상 ▲정보공유 ▲시간관리 ▲감성 케어 ▲코스트 절감 등 고객 개개인을 위한 5대 핵심 서비스를 구체화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16~17일 강원도 양양에서 개최된 '2015 리더 혁신 캠프'에서 뉴 라이프 크리에이터를 통한 세계 일등 기업론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이 부회장은 5대 핵심 서비스 제공과 함께 세계 일등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고객을 가장 잘 이해하는 회사가 돼야 한다"며 "모든 접근은 고객 가치에서 출발하고 필요한 외부기술은 액티브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통신산업은 가입자 경쟁전에만 매몰돼 다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컴퓨터, PC통신, 포털, SNS, OTT등 정보통신 기술의 변곡점마다 실패했다"면서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지난 5년동안 끊임없는 국내와 세계 최초 성과 창출로 가장 빠른 가입자 성장과 더불어 매출 성장률 1등,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 1등을 달성해 시장을 선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서 IoT 시대로 접어들어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뉴 라이프 크리에이터는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가는 핵심"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이재영기자 ljy@

정숙성·착한 값 갖춘 하이브리드 연비가 23.8㎞

시승기

LF쏘나타 하이브리드

27개월간 연구개발비 1800억 투입한 탄탄한 기본기와 첨단기술

LF쏘나타 하이브리드는 연비와 정숙성, 착한 가격 등 다방면에서 매력적인 차량이다. 현대자동차가 2020년까지 친환경차 '22개 차종' 이상을 개발해 전세계 시장에서 '2위'를 기록하겠다는 목표로 개발된 만큼 'LF쏘나타 하이브리드'는 탄탄한 기본기와 첨단 기술로 무장했다. 27개월의 연구개발 기간 동안 1800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현대차가 독자 개발한 '병렬형 하드타입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다.

LF쏘나타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모델과 조금 다른 전면 디자인이 적용됐다. 가솔린 모델보다 볼륨감을 키웠고 라디에이터 그릴은 벌집모양으로 만들었다. 라디에이터 그릴 후면에는 지능형 공기유입제어장치가 설치돼 공력 성능과 연비를 극대화시켰다.

LF쏘나타 하이브리드 실내 센터페시아(중앙조작부분)는 내비게이션, 공조기, 인포테인먼트 조작 버튼, 공조기 조작 버튼 등이 수평형으로 배치돼 운전자가 한눈에 모든 것을 조작하기 쉽게 돼 있다. 기어박스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주행모드 등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전용 클러스터페시아(계기판)는 배터리 충전 상황, RPM, 속도 등을 알려준다. 4.2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는 주행상태, 주행 방향, 운전모드 등을 한눈에 보여준다.

뒷좌석은 성인남성 3명이 앉아도 여유롭다. 좌석 중앙에 있는 암레스트(팔걸이)를 내리면 트렁크와 연결된 구멍이 뚫려있어 스키 등 길이가 긴 짐도 적재가 가능하다.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배터리가 트렁크에 있어서 적재 공간이 좁았다. 하지만 LF쏘나타 하이브리드는 배터리를 보조타이어 공간 내부로 이동시켜 380리터의 공간을 확보했다.

시동을 걸었는지 헷갈릴 만큼 실내는 정숙하다. 가격도 착하다. 동급 경쟁 모델과 비교해도 저렴한 편이다. 정부의 친환경차 세제혜택 등 보조금을 모두 받으면 더욱 매력은 높아진다.

18일 현대차의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모델(17인치 타이어 기준 공인연비 17.7㎞/ℓ)을 타고 서울 서대문을 출발, 경기도 부천까지 왕복 60㎞를 주행했다. 경인 고속도로에서 평균 속도 80~100㎞를 유지하며 주행했다. 그 결과 평균 연비가 23.8㎞/ℓ를 기록했다. 공인연비보다 6㎞/ℓ나 높게 나온 것이다.

현대차의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전기모터, 두 개의 심장으로 달리는 차인 만큼 높은 연비를 최대 무기로 내세운다.

하이브리드는 힘이 없다는 편견은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면서 깨졌다. 성능 또한 가솔린 차량보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차 중형급 이상에 설치된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개의 주행 모드도 똑같은 성능을 발휘했다.

오르막길도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가 함께 출력을 뿜어내면서 무리없이 넘었다. 가속페달을 밟으면 가솔린 엔진이 곧바로 반응했다.

운전의 재미를 더 느끼고 싶다면 스포츠 모드로 놓고 맘껏 밟으면 된다. 내리막길에서는 엑셀을 떼니 연료 소비 없이 관성주행으로 전기모터가 돌면서 상당 거리를 운행할 수 있었다.

운전자의 연비 운전을 돕는 '관성 주행 안내'도 인상적이다. 진행 방향을 바꾸거나 톨게이트 등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는 내비게이션으로부터 도로 분석 정보를 받아 가속페달 해제 또는 브레이크 사용 시점을 계기판에 미리 알려준다.

높은 연비와 성능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초기 구매 비용이나 부품 가격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인식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라면 더더욱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권하고 싶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국내 고객을 위해 '트러스트 하이브리드' 캠페인을 추진한다.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은 10년간 20만㎞ 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중고차 가격 보장 서비스(1년 75%, 2년 68%, 3년 62%)도 제공한다.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기존 모델보다 25만원 낮춘 2870만~3200만원대로 책정했다.

/김승호기자 fun@metroseoul.co.kr

복합할부 수수료율 인하 협상 시작

현대차 "1.3%로 내려야" vs 신한카드 "1.5% 이하론 못 내려"

현대자동차가 신한카드와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 인하 협상에 나선다. KB국민카드와 BC카드에 이은 세 번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신한카드는 다음 달 15일 카드 가맹점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19일부터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을 시작한다.

현대차는 이번 협상에서 현재 1.9%인 신한카드의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체크카드 수준인 1.3%로 내려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KB국민카드와의 협상에서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체크카드 수준인 1.5%로 조정했다. BC카드와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가맹점 계약은 유지하되 복합할부 취급은 중단키로 했다.

신한카드와의 이번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카드는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내릴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대차의 입장을 우선 들어본 뒤 검토하겠지만 BC카드와 마찬가지로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카드(신용·체크카드복합할부)를 이용해 현대차를 구매한 금액은 2조원 가량이며, 이 가운데 복합할부 금액은 30%인 6천억원 수준이다.

복합할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신한카드는 2200만명의 가입자를 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카드사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현대차가 가맹점 계약 종료를 통보하거나, 복합할부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등 초강수를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오는 3월에는 삼성카드와 협상을 앞둔 만큼 현대차가 신한카드와 협상에서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013년 기준 삼성카드의 복합할부 시장 규모는 1조2500억원으로, 현대카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부터 현대카드가 복합할부 상품 취급을 중단해 삼성카드의 복합할부 실적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삼성카드는 현대차의 수수료율 인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사의 신용공여 기간을 늘린 새로운 구조의 복합할부 상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상품은 고객이 카드로 자동차를 결제하면 할부금융사가 결제금액을 1~2일 만에 갚아주고 고객으로부터 할부금을 받는 구조에서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지 30일 뒤에 할부금융사가 카드사에 대금을 갚는 구조로 바뀐다. 카드사의 일반적인 신용카드 거래방식과 크게 차이가 없어 이 상품을 활용하면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새 상품은 업계로부터 불필요하게 원가를 부풀려 카드사와 할부금융사가 가맹점 이익을 편취하려는 상품으로 '원가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 산업계의 노력에 역주행하는 '꼼수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호기자

쌍용차, '티볼리' 성공 다짐 부문별 전진대회 성료

판매확대와 2015년 목표달성 결의 다져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이유일; www.smotor.com)는 신차 '티볼리(Tivoli)'의 판매확대와 사업목표 달성을 다짐하기 위해 부문별로 전진대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 TW 메리어트 동대문호텔에서 열린 '2015년 국내영업본부 목표달성 전진대회'에는 쌍용차 영업부문 최종식 부사장, 국내영업본부 송영한 전무를 비롯해 임직원 등 260여명이 참석했다. 2014년 판매실적 포상과 함께 올해 사업계획 발표, 목표달성·정도영업 결의문 채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5년 연속 판매 성장세를 통해 지난해 2005년(7만3543대) 이후 연간 최대 내수판매(6만9036대)를 기록한 쌍용자동차는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강력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구축과 상품성 향상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대리점 환경 개선 등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고객만족도 1위 달성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김승호기자

백화점 설 상품권 패키지 판매

"대량 구매 고객 지갑 열어라"

백화점 업계가 설 명절을 한 달가량 앞두고 상품권 판매에 돌입했다. 매년 판매가 증가하는 만큼 올해는 판매 기간을 늘리는 등 백화점 별로 법인 등 대량 구매 고객의 지갑을 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내놓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다음 달 18일까지 전 점포에서 설 상품권 패키지 1만2000세트를 한정 판매한다. 패키지는 300만원·1000만원·3000만원 패키지로 구성됐다.

이 백화점은 상품권 패키지 총 금액을 지난해 설 보다 13% 늘리고 판매 기간도 5일 앞당겼다. 특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꾸데 디자인 상품권으로 구성된 3000만원 상당의 고액 패키지를 전년 보다 20여 물량 늘렸다.

작년 추석에 이어 올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 체크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대·하나SK 등 구매 가능한 카드사도 확대했다.

롯데모바일상품권은 50만원·10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각 2%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추가 증정한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19일부터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설 상품권 패키지를 판매한다.

행사 기간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상품권을 구입하면 금액대에 따라 구매 금액의 0.5%, 2%, 2.5% 상품권 또는 네스프레소 캡슐커피머신, 와인 세트 등 사은품을 증정한다. 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으로는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배송해 주는 '2시간 익스프레스'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15년 만에 디자인을 교체한 신규 상품권도 19일부터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쇼핑 뿐 아니라 외식, 여행,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매년 명절 기간 10% 넘게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로 소액 구매를 원하는 법인 고객 … 200만원 이하의 소액 패키지도 함께 선보인다"고 전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신동빈 롯데회장, 스키협회 100억 지원

2020년까지 … 문체부 장관과 평창 스키코스 점검

롯데그룹이 스키협회에 올해 20억원을 출연하고 향후 2020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한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16~18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군 일대 스키장을 방문, 스키 코스를 점검하고 스키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스키협회장을 맡고 있는 신 회장은 스키 코칭 스태프와 국가대표 선수단을 만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대한스키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스키협회에 향후 2020년까지의 지원계획을 밝히며 "선수단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메달 포상금은 물론 국내 경기단체 최초로 4~6위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국인 코치 확대, 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 일수와 대회 참가 횟수 확대, 선수별 맞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한스키협회 20대 회장에 취임했다.

/조치훈기자 …

신동빈 대한스키협회 회장(… 롯데그룹 회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7일 평창 국가대표 스키 코치 … 경기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서정가제 두 달… 온라인 차별화 잰걸음

반디앤루니스 '북셀프 3.0'·인터파크 '북버스' 시작

온라인 서점가가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다양한 서비스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책값 할인율이 10%이고 쿠폰이나 적립으로 줄 수 있는 혜택도 5%로 제한되면서 가격 할인 경쟁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간 온라인 서점의 책 판매량이 10% 내외로 줄었다. 할인과 쿠폰, 적립 등의 혜택이 줄어 타격을 받은 것이다.

이에 업계는 가격 혜택에서 벗어나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독서 인구를 공략하고 있다.

최근 반디앤루니스는 온라인·오프라인 등 구매 채널에 상관없이 반품·교환이 가능한 '북셀프 3.0'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통 구조가 달라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주문 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 수령만 가능했던 것을 교환이나 반품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다. 별도 택배비가 발생하지 않고 시간도 아낄 수 있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업계 측은 기대하고 있다.

중고도서 관련 서비스도 주력하고 있다. 정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 온라인 서점의 중고도서 카테고리 방문자수는 개정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 110% 늘었다.

인터파크 도서 계룡 북파크

인터파크 제공

인터파크 도서는 중고책 매입 서비스 '북버스'를 오픈하고 이달 20일부터 수거를 시작할 예정이다. 회원·비회원 누구나 소장하고 있던 도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중고도서전용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판매 가능 도서인지 검색한 후 판매 예상가를 확인하고 나면 북버스 차량 방문, 직접배송, 전담택배, 편의점택배 등의 방법으로 책을 판매할 수 있다. 특히 서울·경기권(목동, 노원구, 분당, 일산)이라면 북버스가 직접 수거해 간다.

예스24는 앞서 진행했던 중고책 바이백 서비스가 호응을 얻자 서비스 기간을 1월 31일까지 연장 진행하기로 했다.

바이백 서비스는 구매 도서를 예스24로 보내면 정가의 최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중고책 매입 서비스다. 2차 이벤트센터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다.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작한 2차 이벤트에서는 신청 건수와 신청 도서가 1차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일평균 참여 회원수도 약 82%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가격 혜택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 전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지금 당장은 매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 같은 차별화 전략으로 유통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ksj0215@

해외 직판, 면세점 등 오프라인 확대

해피모리, 도큐핸즈 입성 … 흘리코, 롯데면세점 입점

온라인을 통해 해외 직접판매(직판) 사업을 해왔던 업체들이 소매체인점이나 면세점 등에 잇따라 입점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직판 사업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카페24를 운영하는 심플렉스인터넷에 따르면 글로벌 인지도를 구축한 온라인 쇼핑몰의 오프라인 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해피모리'는 도큐핸즈(Tokyu Hands)와 로프트(Loft) 등과 같이 일본 전역에 매장을 둔 소매체인에 입점했다.

아마존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해왔던 이 업체는 지난해에만 전체 매출 중 60% 이상을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벌어들였다. 오프라인 사업 확대로 해외 소비자의 상품 선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업체 측은 기대하고 있다.

가죽 수공예품 전문인 '텍스터너리'(사진)의 경우 최근 마랍에미리트 두바이 내 오프라인 편집숍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희소성을 갖춘 한국형 수제품을 판매해 해외 판매 경로를 넓힌 사례로 꼽히고 있다.

중국 티몰, 일본 라쿠텐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했던 '흘리코'는 지난해 롯데면세점에 입점했다. 중국과 일본에서 특허 기술로 만든 천연섬유 리본이 호응을 얻은 것이 면세점에 입점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 업계 측의 설명이다.

이재석 심플렉스인터넷 대표는 "세계적 인지도를 키워가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들에 대한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의 관심이 급증세"라며 "사업자들은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활용함으로써 매출 증대 및 인지도 상승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수정기자

화장품도 '허니버터' 열풍

꿀·버터 성분 담은 팩·에센스 잇따라 등장

최근 제과업계에 불고 있는 '허니버터' 열풍이 뷰티업계까지 번졌다. 화장품 업체들이 꿀·버터·감자 등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것.

미샤가 지난달 말 출시한 '허니버터팩'(사진)은 벌꿀과 버터 성분을 함유한 워시오프팩이다.

이 제품은 허니버터칩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아카시아 벌꿀과 프랑스산 고메버터를 재료로 사용했다. 프랑스 전통 무염버터인 고메버터는 일반 버터보다 발효과정을 한 번 더 거쳐 비타민A·E·셀레늄·레시틴·미네랄 등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자 추출물도 들어 있어 피부톤을 밝고 투명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덧붙였다.

스킨푸드도 지난해 11월 로열허니 프로폴리스 에센스, 로열허니 커버 바운스 등 꿀을 담은 신제품을 내놨다.

꿀을 '에센스'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로열허니 프로폴리스 에센스는 정제수 대신 블랙비프로폴리스추출물·로열젤리추출물 등을 사용했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꿀은 예로부터 천연 보습제로 활용됐다"면서 "춥고 건조한 겨울철을 맞아 꿀 화장품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수급 조절 실패… 양파값 '폭락'

지난해 7년 만에 최저… 1kg 도매가 588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 조절 실패로 양파 가격이 폭락, 지난해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양파 가격은 올 들어서도 지난해 연평균 도매가격보다도 낮은 상태다.

농민들이 지난해부터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인한 가격폭락을 꾸준히 경고해 왔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수방관하며 책임을 생산 농민에게만 떠넘기고 있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양파 상품 kg당 연평균 도매가격은 588원으로, 전년인 2013년(1307원)보다 55%나 급락했다. 이는 2007년(551원) 이후 최저 가격이다.

지난해 채소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상품 도매가 기준으로 배추(-46.9%), 당근(-45%), 배추(-42.8%), 시금치(-30.9%) 등과 비교해도 하락폭이 크다.

양파 상품 kg당 연평균 소매가격도 전년(2381원)보다 38.3% 떨어진 1470원이었다. 16일 현재 서울시 가락동도매시장에서 양파 가격은 1kg당 540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상태다.

통계청 집계 기준 지난해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약 19% 증가했지만 매출은 부진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배추·양파 등 일부 채소의 올해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3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편지훈기자 [illegible]

롯데리아, '착한아침 콤보' 2000원!

롯데리아는 19~23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햄에그머핀과 아메리카노로 구성된 '착한아침 콤보' 메뉴를 2000원에 판매한다.

이 기간 같은 시간대에 아메리카노 제품도 900원에 선보인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롯데리아 착한아침 메뉴 중 가장 인기가 높은 햄에그머핀과 아메리카노를 2000원에 부담없이 맛볼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참여 매장은 롯데리아 홈페이지(www.lotteria.com) 또는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Lotteri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솔로이코노미 시대 '골드 미스터' 뜬다

싱글남 10년 새 2배↑… 아이템 출시 봇물

본격적인 솔로이코노미(solo economy·1인 가구 경제) 시대를 맞아 '골드 미스'에 이어 '골드 미스터'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 가구는 25.9%(471만4000가구)로 1980년 4.8%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충분한 경제력을 확보한 뒤 결혼하려는 '자발적 만혼 현상'으로 싱글남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혼자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남성을 '큰 손'으로 분류, 이들을 공략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싱글남의 필수 요건은 바로 철저한 자기관리. 필립스는 코털은 물론 눈썹·수염 등 남성들의 체모를 관리할 수 있는 '멀티그루밍 킷 프로'를 내놨다. 수염을 깔끔하게 다듬을 수 있는 트리머를 비롯해 헤어 클리퍼, 눈썹 정리기 등 총 7가지 액세서리로 구성됐다.

라쉬반은 트렌드에 민감한 남성들을 겨냥해 5부 길이의 내복 '뉴히트'를 선보였다.

번거로운 사용 때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 내복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돼 옷의 핏감도 망가뜨리지 않는다. 더불어 3D 분리 구조로 남성 주요 부위 최적 온도인 33.5도를 항상 유지시켜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준다.

집에서도 커피전문점 못지 않은 고급 커피를 즐기고 싶어하는 남성들에게는 커피머신도 필수 아이템이다.

캡슐커피 브랜드 네스프레소의 '이니시아'는 작은 크기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19바(Bar)의 높은 압력을 자랑한다. 이밖에 25초 예열·자동커피량 조절·9분 미작동 시 자동 전원해제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싱글남들이 최근 중요한 소비계층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유통업계에서는 싱글남의 섬세하고 까다로운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용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이랜드가 지난 16일 문을 연 홍콩 디-파크 쇼핑몰. /이랜드 제공

이랜드 홍콩 첫발… 최대 규모 복합관 열어

스파오·후아유·티니위니·케이스위스·팔라디움 오픈

이랜드가 한국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복합관을 선보이며 홍콩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은 지난 16일 홍콩 디-파크 쇼핑몰에 스파오·후아유·티니위니·케이스위스·팔라디움 등 총 5개 브랜드, 총 면적 5500㎡ 규모의 복합관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디-파크는 홍콩 침완 지역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로 홍콩 최대 규모의 부동산 유통기업인 홍콩 신세계그룹이 소유한 쇼핑몰이다.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은 "전 세계 브랜드의 격전지인 홍콩에 진출하기 위해 오랜시간 준비해 왔다"며 "이번 오픈을 시작으로 더 많은 브랜드를 진출시켜 홍콩 국민의 사랑을 받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그랜드 오픈식에는 슈퍼주니어의 이특과 강인 등 한류 스타와 한국 대표 브랜드를 보기 위해 2000여 명의 팬이 몰려 한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3일 동안 10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뤄 홍콩 내 다른 유통 그룹에서도 입점 요청을 해오고 있다"며 "주요 쇼핑몰 4~5곳과 추가 입점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랜드는 향후 침사추이와 코즈웨이베이 등 홍콩 중심가로 진출을 가속화 하고 2020년까지 연매출 1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원기자

metrohealth

허리 목 디스크 질환!!

신뢰 있고 믿음 가는 명품 고주파로 10분에 끝!!

조성태원장 강남초이스병원 원장과 가수 김종국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제대 후 KBS2 TV '불후의 명곡'과 JTBC '히든싱어' 우승으로 화제를 모으고 최근 전국 투어 콘서트와 뮤지컬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가수 휘성은 군 복무기간 악화된 허리 디스크로 방송활동 복귀가 어려웠다.

하지만 방송활동을 다시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로 치료를 위해 강남초이스병원에 내원했다. 담당 주치의인 조성태 강남초이스병원 원장은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휘성의 상태를 진단하고 빠른 회복을 위해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했다.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된 휘성은 당일 퇴원한 후 곧바로 방송활동을 재개했다. 또 현재까지 큰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원로 가수 장미화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종국과 개리 자석진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강남초이스병원을 찾아 휘성과 같은 치료를 받았다.

이처럼 4년 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강남초이스병원에서 시행한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은 기존의 일반 고주파 디스크 치료와는 다른 진화된 치료법이다. 국소 마취하에서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미세 고주파 바늘을 정확하게 위치시킨 후 탈출된 추간판을 수축시키고 제자리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퇴행성 협착증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10분 정도면 끝나는 간단한 시술이며 통증과 흉터가 없다. 게다가 수술이 두려운 환자나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도 시술받을 수 있다.

스타들은 상업적인 광고모델로 기용하지 않았지만 강남초이스병원은 이 치료를 통해 이름이 알려졌다. 이 치료를 받기 위해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강남초이스병원은 Mnet '슈퍼스타K 시즌2'의 지정 병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강남초이스병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시스템이 공인된 셈이다.

이와 함께 강남초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증상과 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를 하고 첨단 장비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다. 진단 후에는 환자에 맞는 치료를 하고 치료 후에는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도수 감압 운동치료를 병행한다.

조 원장은 "우리 병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격이 비싸고 부작용이 많은 꼬리뼈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카테터 신경 성형술,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치료술 대신 건강보험이 인정되는 비수술 치료술을 시행한다. 대학병원 교수 출신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명예와 양심을 걸고 환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와 믿음이 가는 정직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재용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자궁근종 치료, 임신·위치 고려해야

부담 최소화하는 하이푸 시술 인기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에 생기는 양성 종양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다.

자궁근종의 가장 흔한 증상은 월경량 증가와 월경통, 성교통 등이며 환자 중 약 절반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궁근종이 있어도 크기가 작거나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만약 불편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자궁근종의 절제가 필요하다. 치료법은 약물치료와 수술적인 치료, 비수술적인 치료 등이 있으며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로 병변을 제거하는 것이다.

특히 자궁근종 절제술은 임신 계획과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궁난관 조영술과 자궁내막·세포진 검사 등도 거쳐야 하며 고령의 임산부들은 자궁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절제술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안전하고 유효한 시술이라는 검증을 거친 하이푸 시술(HIFU)이다. 이 시술은 신체의 절개나 삽입 없이 외부에서 고강도 초음파 열을 이용해 자궁 안에 있는 근종을 괴사시키는 치료법이나 칼이나 바늘을 사용하지 않아 신체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며 시술 시간과 회복기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다.

김태희 청담산부인과외과 원장은 "과거에 많이 사용된 절제술 혹은 적출술은 흉터와 기능 상실 등의 단점과 환자의 정신적인 상실감이 컸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 대신 비침습적인 하이푸 치료를 통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겨울철 위협받는 목 건강!

차고 건조한 공기가 성대 질환 유발

겨울이 되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거나 성대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실 겨울 성대 질환의 원인은 건조하고 차가운 날씨다. 찬 기온과 바람이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목 근육과 성대 근육을 경직시키는 것이다.

또 코의 막힘 증상이 생겨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서 공기가 입을 통해 유입되면 성대가 건조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말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성대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성대 점막이 손상된다. 이것이 반복되면 성대결절이나 성대폴립, 성대부종 등이 발생한다.

성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습과 생활화가 필요하다. 비염이 있는 경우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게 되더라도 오랜 시간 노출은 피해야 한다. 게다가 목이 피곤하거나 목소리가 갈라지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아울러 담배나 술, 카페인 등은 성대의 점막을 마르게 하고 성대부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증상이 사라지지 않으면 병원을 찾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성대결절과 성대폴립 등을 조기에 치료받으면 쉽게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성대 질환이 만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며 만성적인 성대결절로 상태가 발전됐다면 수술 등을 통해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좋다.

김형태 예송이비인후과 음성센터 원장은 "최근에는 수술 후 당일 퇴원이 가능한 치료법도 등장했다. 목에 이상이 생기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ero1364@

이민법인대양, 미국 투자이민 세미나

24일 - 럭키스 마켓 부사장 특별 초빙 강연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민법인대양(대표 김지선)이 오는 24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럭키스 마켓(Lucky's Market) 프로그램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투자이민의 최근 동향에 대한 소개와 미국 세법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다. 특히 제이슨 브라운(Jason Brown) 럭키스 마켓 부사장의 특별 강연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실제로 럭키스 마켓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유기농 식품과 가공식품을 판매해 현지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럭키스 마켓은 투자이민 프로그램 1차 모집에서도 성공적으로 모집을 완료했다.

김지선 이민법인대양 대표는 "미국 투자이민은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에 우리는 투자 프로그램 수익이나 소요기간 등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투자자들이 어떤 손실도 없이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 참석 후 계약하는 고객에게는 당사 항공권 등 특별한 혜택이 제공 된다. 문의 02)556-7779. www.dylmin.com /황재용 기자

이화의료원, 봉사단 발대식

베트남·우즈베키스탄서 무료 진료 등 예정

이화여대 의료원(원장 이순남)이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2015 해외 의료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봉사단은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펼치며 이화의 설립 정신인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는 봉사단은 18~24일 6박 7일의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에서 활동하게 되며 성주명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단장을 맡는다.

또 베트남 봉사단은 오는 24~30일 베트남 하노이와 선라에서 무료 건강검진과 진료, 특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윤식 치과 교수가 단장으로 봉사단을 이끌게 된다.

한편 의료원은 1989년 네팔에서의 의료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나양한 지역에 봉사단을 파견했으며 2007년 이후에는 매년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봉사활동을 실행 중이다. /황재용 기자

동국제약, 해외봉사 의약품 지원

자선음악회 '뷰티풀마인드'에 '마데카솔케어' 등 전달

동국제약은 '인사동 사랑봉사단'이 최근 레바논과 요르단에서 자선음악회를 개최하는 '뷰티풀마인드'에 '마데카솔케어' 등의 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인사돌'과 '마데카솔' 등 회사의 대표 브랜드 제품의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동국제약은 단발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기관과 협의해 장기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 인사동 사랑봉사단을 조직했다. 봉사단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뷰티풀마인드는 전 세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문화외교 자선단체다. /황재용 기자

'우콘파워' 증정 이벤트

디앤엑스플러스가 숙취해소제 '우콘파워'의 정식 수입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배송비만 결제하면 우콘파워 과립 1박스를 증정하는 이벤트로 온라인 쇼핑몰 유스랩(www.youthlab.co.kr)에서 진행된다. 우콘파워는 카레의 주재료인 울금에 들어있는 커큐민을 함유한 숙취해소제로 일본 숙취해소 시장에서 1위를 기록 중이다. 문의 1544-0760 /황재용 기자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서장훈 케이블 예능 MC

서장훈이 MC로 변신한다. 서장훈은 방송인 라마 프리스타일 미노와 함께 26일부터 엠넷 '이만TV'를 진행한다. 그는 최근 MBC '무한도전', '세바퀴' 등에 출연해 전문 방송인 못지않은 입담을 뽐냈다. '이만TV'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방송인을 발굴하는 과정을 그린 예능 프로그램이다.

'막돼먹은…' 김현숙 출산

지난해 동갑내기 사업가와 결혼한 개그우먼 **김현숙**이 18일 오전 3.4㎏의 건강한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그는 KBS2 '개그콘서트'에서 출산드라 캐릭터로 큰 인기를 모았다. 이후 2007년부터 tvN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에서 노처녀 주인공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다이얼라우드 신곡 발표

밴드 **디어클라우드**가 오는 22일 싱글 '엄마의 편지'를 발표한다. '엄마의 편지'는 지난해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에서 처음 공개한 곡으로, 디어클라우드는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느낀다. 아이에 대한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노래했다"고 밝혔다.

엑소, 중국 시상식 2관왕

그룹 **엑소**가 중국 베이징 워터큐브에서 열린 '2014 요우쿠 나이트' 시상식에서 아시아 최고 인기 그룹상과 아시아 최고 퍼포먼스 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시상식에는 견자단, 중한량, 오기륭 등 중화권 스타들이 대거 참석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두 번째 도전

캐릭터 매료…감독까지 맡은 운명 같은 영화
'멘붕'의 순간 힘이 된 건 최동훈 감독의 조언
"마흔 살 넘기 전까지는 배우 일에 전념할 것"

'허삼관' 감독·주연 하정우

"불가능은 없다는 말을 좋아해요. '허삼관'의 출연과 연출을 제안 받았을 때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딱 하나만 고민했어요. 이 영화를 연출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말이죠."

첫 장편영화로 데뷔한 신인 감독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 번째 연출작을 결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가 제 아무리 유명한 배우 출신 감독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신인 감독 하정우(36)가 데뷔작 '롤러코스터'를 마치자마자 다음 연출작으로 '허삼관'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놀라웠던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하정우에게 '허삼관'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먼저 배우로서의 끌림이 있었다. 2011년 제작사 두타연의 안동규 대표 제안으로 읽게 된 중국 작가 위화의 소설 '허삼관 매혈기'는 독특한 캐릭터의 문체까지 자신의 '코드'와 잘 맞는 작품이었다. 역할 나이 때문에 마흔 살이 넘어서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원작 소설의 판권 계약 문제로 예상보다 빠르게 출연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감독이었다. 안동규 대표로부터 주연과 감독 모두 제안을 받게 된 그는 쉽지 않은 도전에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불가능은 없다"는 삶에 대한 태도가 무모한 도전을 현실로 만들었다. 예상대로 프리프로덕션 단계부터 고민의 나날이 이어졌다. '롤러코스터'보다 약 14배가 많은 67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만큼 '멘붕'이 계속됐다.

"마침 최동훈 감독과 함께 '암살'도 같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최동훈 감독에게 고민을 털어놨더니 '원래 감독을 하다 보면 세 번 정도 멘붕이 온다'고 하더라고요(웃음). 그리고 '완벽한 시나리오가 어디 있느냐'며 '배우 하정우를 믿어봐라'라고 조언해줬어요. 그 말에 힘을 얻어 배우 하정우가 촬영장에서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런 하정우 감독의 노력이 스크린에 잘 녹아들었기 때문일까. 완성된 영화는 매끄러운 각색과 연출이 눈에 띈다. 방대한 원작에서 가족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춘 전략과 집중, 그리고 인물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연출력은 하정우 감독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허삼관'이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로서의 하정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연기한 허삼관은 세 아이를 둔 가장이지만 근엄함과는 거리가 먼 철부지 아빠다. 하정우는 "남자는 결혼해서 아빠가 되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삼관이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전혀 아버지 같지 않은 지점이었어요. 자기 내색도 다 하고 감정도 다 드러내죠. 어버지이기 이전에 철없는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게 현실이죠. 저 역시도 허삼관처럼 자식들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스스럼없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더 테러 라이브'를 시작으로 '롤러코스터'와 '군도: 민란의 시대', 그리고 '허삼관'까지 배우와 감독 작업을 병행해온 하정우는 당분간 배우 일에만 전념할 계획이다. 촬영 막바지에 접어든 최동훈 감독의 '암살'을 마친 뒤에는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촬영이 들어가는 5월까지 "묵은 때를 벗겨낼"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언젠가는 우디 앨런 감독처럼 희망과 긍정의 기운을 나눌 수 있는 작품들을 또 다시 연출하고 싶다. 하지만 마흔 살을 넘기 전까지는 감독 일은 잠시 미뤄둘 생각이다.

"당장은 배우로서 경험을 더 쌓으려고 해요. 좋은 감독님을 만나 작업을 하다 보면 세 번째 연출작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깊이와 밀도가 생겨나겠죠. 지금 저는 감독이 돼가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김근주(라운드테이블)·디자인/원세림

가요계 남자 솔로 '풍년'

샤이니 종현

지소울

종현·정용화, 앨범 발표···지소울, 15년 만에 데뷔

이번달 가요계는 남자 솔로 가수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샤이니 종현은 지난 12월 첫 번째 솔로 앨범 '베이스(BASE)'를 발표하고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자이언티(Zion.T)와 함께한 타이틀곡 '데자-부(Deja Boo)'는 발표 직후 지니·올레뮤직·벅스 등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를 기록했다. 레퍼 이어 연과 호흡을 맞춘 더블 타이틀곡 '크레이지'의 뮤직비디오는 중국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이 뮤직비디오 주간 차트(1월 5~12일) 한국어 부문 1위에 오르며 국내외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뒀다.

유승우는 13일 기타리스트 정성하와 손잡고 신곡 '테이크 마이 핸드(Take My hand)'를 발표했다. 그는 이번 노래에서 처음으로 R&B 장르에 도전했다. '테이크 마이 핸드'는 한층 성숙해진 유승우의 목소리가 특징으로 스윙 리듬의 편한 비트에 느린 템포의 R&B 멜로디가 어우러진 곡이다.

또 JYP 엔터테인먼트의 최장수 연습생인 지소울(G.Soul)은 오랜 준비기간 끝에 19일 데뷔 앨범 '커밍 홈'을 발표한다. 타이틀곡 '유(You)'를 비롯해 모두 자작곡으로 이뤄졌다. 지소울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노래에 담았다"며 "R&B, 소울 등 흑인 음악뿐만 아니라 딥 하우스 등 다양한 장르도 시도했다"고 밝혔다.

씨엔블루 정용화 역시 20일 첫 번째 솔로 앨범 '어느 멋진 날'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용화는 양동근·버벌진트·윤도현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음악 색깔을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앨범 전곡을 자작곡으로 채워 싱어송라이터로서 발돋움하겠다는 각오다.

에디킴은 15일 새 앨범 '싱싱싱(Sing Sing Sing)'의 신곡 '어폴로자이즈(Apolozie)'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컴백을 예고했다.

/탁진현기자 tak@metroseoul.co.kr

정우성 차기작은 '작서의 변'

조선 배경 괴수영화···내달 말 크랭크인

배우 정우성(사진)이 차기작으로 액션 사극 '작서의 변-꽃괴의 습격'(감독 신정원)을 선택했다.

'작서의 변'은 중종 22년 임금의 곁에 나타난 괴물을 피해 궁을 옮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다. '시실리 2km' '차우' '점쟁이들'의 신정원 감독의 신작이다.

정우성은 남자 주인공 윤겸을 연기한다. 물괴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는 동시에 반정을 꾀하는 훈구세력을 제압하는 중종의 충신이다.

신정원 감독은 윤겸을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 막시무스와 같은 역할로 소개하며 정우성만을 떠올렸다고 밝혔다. 정우성도 시나리오를 읽은 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괴수영화라는 장르에 호기심을 갖고 출연을 결심했다.

'작서의 변'은 '반지의 제왕'과 '호빗' 시리즈 등으로 잘 알려진 CG 전문회사 웨타 디지털과 함께 작업한다. 액션영화인 만큼 철저한 고증과 상상력을 적절히 배합해 작품성과 오락성 모두를 잡겠다는 각오다. 다음달 말 크랭크인할 예정이다.

/정성호기자 [illegible]

'국제시장'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

'오늘의 연애'와 함께 극장가 흥행몰이

영화 '국제시장'이 3일 만에 박스오피스 정상을 탈환했다.

18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국제시장'은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33만3558명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로 올라섰다.

'국제시장'은 지난 14일 개봉한 '오늘의 연애'가 흥행 선두로 나서자 15일부터 박스오피스 2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주말인 토요일에 다시 관객 수가 상승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다시 올랐다. 누적 관객수는 1078만2359명을 기록하며 역대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10위인 '실미도'(1108만)를 뒤쫓고 있다.

'오늘의 연애'도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하루 동안 28만2082명의 관객을 보아 박스오피스 2위 자리를 지켰다. 누적 관객수는 73만4354명으로 100만 관객 돌파가 가까워진 상황이다.

이어 '박물관이 살아있다: 비밀의 무덤'과 '허삼관'이 각각 3·4위를 기록했다.

/정성호기자

김우빈 아시아 투어 스타트

中 심천 시작 북경·상해·태국·대만·인니 등 돌아

배우 김우빈(사진)이 아시아 투어에 돌입했다.

'2015 더 모먼트 오브 김우빈 인 아시아'로 17일 중국 심천을 시작으로 북경·상해·태국·대만·인도네시아 총 6개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우빈은 지난해 서울, 홍콩과 대만, 상하이, 태국에서 '김우빈 더 퍼스트 팬미팅 인 아시아'를 열어 뜨거운 반응을 불러 모으며 한류 스타로 자리 잡았다. 이번 투어는 해외 팬과 1년 만에 만나는 자리다. 김우빈은 지난해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팬 사랑에 보답할 예정이다.

소속사 싸이더스HQ의 한 관계자는 "영화 촬영 스케줄 탓으로 해외 팬과 만날 기회가 적었다"며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해외 팬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만의 만남인 만큼 투어 기간 동안 팬들과 뜻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김우빈은 아시아 팬미팅 투어 이후 시기를 조율해 국내 팬과도 만날 계획이다.

/변효진기자 [illegible]

'20세여···' 한중 합작 흥행 신기록

'수상한 그녀' 글로벌판

영화 '20세여 다시 한 번'이 역대 한중 합작영화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다.

제작자 CJ E&M은 "'20세여 다시 한 번'이 중국 개봉 9일째인 지난 16일 누적 박스오피스 매출 2억84만 위안(한화 348억원)을 기록하며 종전 '이별계약'이 가지고 있던 한중 합작영화 최고 매출액 1억93만 위안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20세여 다시 한 번'은 지난해 한국에서 865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수상한 그녀'와 동시 기획된 글로벌 프로젝트로, 스무 살 처녀의 몸으로 돌아간 욕쟁이 칠순 할머니가 난생 처음 누리게 된 전성기를 그린 판타지 휴먼 코미디다.

/정성호기자

강정호 "한국 야구 자존심 걸고 최선"

피츠버그와 '4+1년'·총액 177억 계약…야수 최초 ML 직행

한국 프로야구의 '거포' 강정호(28)가 미국 프로야구(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계약기간 '4+1년'에 총액 1650만 달러(약 177억원)에 계약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와 4+1년 계약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강정호는 한국 프로야구 야수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선수가 됐다.

강정호는 한국에서 달던 등번호 16번 대신 27번을 달고 뛴다. 4년 계약 뒤 구단이 2019년 옵션을 행사하는 조건까지 추가해 최대 계약 기간은 5년이다.

강정호는 계약 발표 만인 17일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에 차려진 '친정팀'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스프링캠프에 합류해 메이저리그 정복을 위한 첫 훈련에 나섰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도록 배려해준 히어로즈 구단에 감사드린다. 이제 빅리그에 가서 잘해야 한다. 여기서 준비를 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금에 만족하기보다 앞으로 잘해야 한다는 생각 뿐"이라며 "한국프로야구 출신 첫 빅리그 직행 야수로서 선구자인데 (내 성적에 따라) 한국 야구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훈련에서 강정호는 아직 등번호 27번이 박힌 피츠버그 유니폼을 지급받지 못해 넥센이 준비한 기존 유니폼을 입고 구슬땀을 흘렸다. 강정호의 에이전시인 옥타곤의 한 관계자는 "넥 현덕터 단장으로부터 넥센 유니폼을 입고 훈련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피츠버그의 유니폼이 공수되면 메이저리그 유니폼을 착용하고 넥센 동료와 2월 중순까지 공동 훈련을 한 뒤 새 팀의 스프링캠프가 열리는 플로리다주 브레이든턴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한용호기자 sdhan@metroseoul.co.kr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계약한 강정호(왼쪽)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친정팀 넥센 히어로즈와 함께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5 호주 아시안컵 A조 1위로 8강에 진출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18일 호주 브리즈번의 퀸즐랜드 스포츠 & 애슬레틱 센터에서 회복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상병동' 태극전사 "회복에 만전"

8강 결전지 멜버른으로

2015 호주 아시안컵 A조 1위로 8강 진출을 확정지은 한국 축구 대표팀이 8강 결전지인 멜버른으로 18일 이동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8일 오전 브리즈번의 공식 훈련장인 퀸즐랜드 스타디움과 숙소에 나뉘어 회복훈련을 치른 뒤 멜버른으로 떠났다.

당초 슈틸리케호는 이날 오전에 멜버른으로 떠나 오후부터 현지에서 회복훈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 후 경직된 몸으로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것보다 몸을 풀고 떠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17일 호주와의 A조 3차전에 나선 11명과 손흥민(레버쿠젠), 한국영(카타르SC), 김주영(광저우 둥어)은 숙소에 남아 수영과 산책으로 몸을 풀었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금까지는 부상자가 속출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그 자리를 충실하게 메워줬다"며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니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누가 언제 출격할지 모르니 모두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날 멜버른 이동 전까지 훈련을 치르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 대표팀은 17일 호주와 가진 A조 3차전에서 1-0으로 승리를 거뒀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활동량을 보인 만큼 선수들은 경기 직후 탈진한 것처럼 그라운드에 쓰러지는 등 적지 않은 체력 소모를 나타냈다.

공격수 구자철(마인츠)은 경기 도중 상대와 공중볼을 다투다 밀려 쓰러져 오른쪽 팔꿈치를 다쳤다. 이날 현지 병원을 찾아 뼈나 인대 등 조직에 이상이 없는지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았으며 분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미드필더 박주호(마인츠)도 상대 팔꿈치에 안면을 맞았다.

한국은 오는 22일 오후 4시30분(한국시간) 멜버른 스타디움에서 8강전을 치른다. /한용호기자

류현진 "강정호, 빅리거에 안 뒤져"

"풀타임 출전 20개 거뜬" 동갑내기 친구 격려

괴물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절친한 벗이자 타자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강정호의 성공을 높게 점쳤다.

류현진은 17일 넥센 히어로즈 전지훈련장에서 강정호의 훈련을 끝까지 지켜본 뒤 "강정호의 방망이 실력이라면 충분히 메이저리그에서 통한다. 빠른 볼도 잘 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풀타임 주전으로 풀타임을 뛴다면 홈런 20개는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격려했다.

또 "메이저리그에서는 몸쪽 스트라이크를 잘 안 잡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강정호에게는 이득"이라며 "여타 빅리거와 비교해 그의 방망이 실력이 뒤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정호는 한국에서 류현진에게 통산 타율 0.167(30타수 5안타), 삼진 10개로 약했으나 리그 정상급 타자로 발돋움한 2012년에만 류현진에게서 2루타 2개, 홈런 1개를 뽑아낼 정도로 장타 실력을 과시했다.

염경엽 넥센 감독은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진출로 팀의 15승 투수가 빠진 것처럼 타격이 심하다"면서 한국 야구사에 새 이정표를 세운 강정호가 빅리그에서 잘 해쳐 나가기를 기원했다.

/김민준기자 mjk.ji@

기성용 빠진 스완지, 첼시에 완패

17일 영국 웨일스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스완지시티와 첼시와의 경기. 첼시의 오스카(왼쪽)가 골을 넣고 있다. /AP 뉴시스

퀸스파크도 맨유에 패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가 첼시를 상대로 0-5 완패를 당했다.

스완지시티는 18일(한국시간) 영국 웨일스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0-5로 패했다.

스완지시티는 최근 기성용이 아시안컵 출전 관계로 자리를 비우고 주 공격수인 윌프리드 보니가 맨체스터시티로 이적하는 등 전력 누수가 컸다.

이날 경기에서 첼시는 경기 시작 1분 만에 오스카르의 선제 득점으로 기선을 잡았다. 전반에만 네 골을 퍼부으며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16승4무2패가 된 첼시는 리그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다.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맨체스터시티와는 승점 5 차이로 앞서 있다.

한편 윤석영이 최근 발목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퀸스파크 레인저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0-2로 졌다. 5승4무13패가 된 퀸스파크 레인저스는 강등권인 19위에 머물렀다.

/한용호기자

정몽구 현대차 회장 불기소

한전 부지에 105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예정

한국전력 부지 거액 매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몽구(77·사진)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은 검찰이 언론보도·풍문 등에 의해 내사를 착수했다가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을 경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전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이 주주의 피해를 예상하고도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의사 결정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새로 나올 경우 추후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정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고발장에 인용한 언론보도 이외에 정 회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각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소액주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감정가보다 3배 비싼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은 것은 배임이라며 그룹 총수인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9월 18일 한전부지 낙찰 이후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주가는 모두 급락했다. 주요 정보 취득에 취약한 기존 개인 투자자들은 적잖은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부지 낙찰 이후 현대차 그룹 3사의 주가 변화를 보면 (9월 18일 시가 - 10월 17일 종가) ▲현대차 21만40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24.4% ▲현대모비스 28만1000원에서 23만5000원으로 16.4% ▲기아차 5만8100원에서 4만3300원으로 8.3%씩 각각 떨어진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논평에서 "주주 의사도 묻지 않은 채 10조원 넘는 투자를 결정했고 이사회의 정상적 절차가 아닌 총수 일가의 독단에 의해 결정됐다는 사실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경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한전부지에 새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심당한 관심을 받았다. 앞으로 한전 부지에 105층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룹의 이미지를 높이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건설은 '강남사옥프로젝트 전담반'을 신설하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위한 기초 설계 공모에 들어간 상태다.

현대건설은 서울시와 용도변경·공공 기여 협상, 건축심의,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물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재휘기자 hasoul@metroseoul.co.kr

/연합뉴스

부탄가스 '썬연료' 공장 불

8개 동 소실 후 6시간만에 진화… 인명피해는 없어

휴대용 부탄가스 '썬연료'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8일 오전 6시30분께 천안 서북구 업성동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사인 태양산업에서 불이 나 6시간만에 진화됐다.

폭발음과 함께 시작된 불로 수만개의 부탄가스통이 폭발해 공장 주변에 떨어지기도 했으며 기숙사에 있던 직원들이 화재경보음을 듣고 대피하는 소동도 벌였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해당 지자체 소방본부 전 인력과 장비를 진화작업에 투입하는 '광역 3호'를 발령하고 소방헬기 5대와 인력 73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하지만 공장 건물들이 조립식 샌드위치패널 구조라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으며 건물 안에는 부탄가스 완제품 등이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전 8시10분께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액화석유가스(LPG) 등 저장시설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인명 재산피해를 확인했다. 다행히 휴일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불이 공장건물 28개 동 가운데 생산라인과 제품창고 등 8개 동을 모두 태워 19억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황재용기자

목포 무장탈영병 3일째 오리무중

군과 경찰이 전남 목포에서 총기와 공포탄을 들고 탈영한 병사에 대한 수색을 3일째 이어가고 있지만 탈영병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육군 제31 보병사단은 18일 총기와 공포탄을 소지한 채 근무지를 이탈한 이모(21) 일병을 잡기 위해 3일째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과 경찰은 이날도 목포와 인근 시·군에서 100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 육·해·공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일병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바다로 실족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탈영한 이 일병이 근무한 초소 부근 바다에서는 특전사와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이 수중과 해상 수색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목포와 영암 등지에서 이 일병으로 의심되는 군복차림의 남성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20여건 접수됐지만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일병은 지난 16일 오전 6시30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해안가 경계초소에서 동료와 근무를 마친 뒤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소지한 채 탈영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동물을 살려주세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모피 반대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어린이집 학대' 금주 검찰 송치

경찰, 추가 범죄 사실 여부 확인 중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주중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경찰은 피해 아동 조사를 대부분 마쳤으며 아동의 피해가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또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보육교사 A(33·여·사진)씨에 대한 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동들의 부모가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가운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도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있는 원장 B(33·여)씨에 대한 추가 소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아동 한 명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재훈기자

/연합뉴스

마카오 원정 성매매 일당 적발

한국 여성 인기 높은 점 노린 유모씨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마카오 현지에서 중국인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마카오에서 한국 여성을 중국인 남성에게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유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준 혐의로 브로커 이모(32)씨 등 2명과 성매매 사실이 확인된 한국인 여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원정 성매매 범죄가 적발된 적은 있으나 마카오에서 한국인 여성이 원정 성매매를 벌인 사례는 처음이다. 이들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성이 인기가 많고 단기간에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와 함께 마카오는 비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들은 관광객 신분으로 10~30일씩 현지에 머무르며 유씨가 현지에서 임지한 고급 아파트에서 합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입건된 성매매 여성 외에 현지에서 원정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홍재용기자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